

윤백영 여사의 유물기록

글 | 김문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사를 전공하는 필자는 늘 기록의 중요함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 주로 문헌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하므로 기록이 없는 역사를 연구하기가 어렵고, 유물로만 파악하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래에 기록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약탈 문화재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다. 2011년에 우리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의궤와 통감부 이후 일본인이 임의로 반출해 간 고도서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임을 입증할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외규장각 의궤는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 군이 작성한 일지에 전리품 관련 기록이 있고, 일제 때 반출된 고도서는 구장각에 있는 대출대장에 구체적인 도서목록이 남아있어, 누구도 이 기록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추가로 돌려받으려면 약탈 문화재임을 입증할 기록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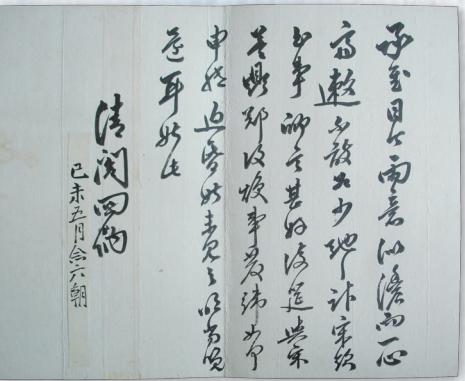
다른 하나는 정조가 보낸 편지에 심환지가 쓴 날짜 기록이다. 이 편지가 공개되기 전까지 심환지는 이른바 '정조독살설'의 주인공이었다. 정조가 그런 심환지에게 수백 통이나 되는 비밀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간에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심환지가 편지 봉투에 기록한 수신 날짜와 시간이다. 정조의 어찰은 정국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비밀편지였기 때문에 원문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이름은 성

이나 이름 한 글자만 있어 누군지 알기 어렵고, 편지에서 말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심환지의 기록은 이 암호를 푸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심환지가 기록한 날짜와 시간을 근거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같은 연대기를 확인하여 인명과 사건을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를 비롯한 어찰 발굴자들이 편지의 원문을 탈초(脫草)하고 역주본까지 낸 데에는 심환지의 기록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필자는 채제공의 후손 집에서도 정조가 보낸 비밀편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편지에는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심환지의 간단한 기록이 가진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자료는 윤백영(尹伯榮, 1888~1986) 여사가 집안에 전해지던 유물에 남긴 기록이다. 윤 여사는 덕온 공주(德溫公主)의 첫 손녀이며, 덕온 공주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딸이다. 공주는 1837년에 윤두수의 10세손인 윤의선(尹宜宣)과 결혼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고 1844년에 사망했다. 덕온 공주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공주이다. 공주가 사망한 후 윤씨 집안에서 윤용구(尹用求)를 양자로 받아들였고, 윤용구의 첫째 딸로 윤백영 여사가 태어났다. 윤 여사는 순종황제의 두 번째 황후인 순정황후 윤씨의 고모뻘이 되어, 1966년 윤황후가 사망할 때까지 궁궐을 출입하며 왕실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 왕실문화 연구자에게 윤 여사의 궁중 생활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

01



01 심환지가 날짜를 쓴 정조의 비밀편지

02



02 녹피와 녹피내력.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윤 여사는 1950년대 후반에 전통복식을 연구하던 석주선(石宙善, 1911~1996) 박사를 만났고, 윤 여사의 집안 유물은 차례로 석 박사에게 넘겨진다. 석 박사는 1958년부터 덕온 공주 집안의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기 시작하여 총 222점의 유물을 확보했다.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날짜는 석 박사가 작성한 개별 유물카드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 석 박사는 1976년에 평생을 두고 수집한 유물 3천여 점을 필자가 근무하는 단국대학교에 기증했고, 덕온 공주 집안의 유물도 그중에 포함되었다.

덕온 공주 집안의 유물은 공주 부부, 윤용구 부부, 윤백영 일가가 사용하던 유물이 중심이다. 또한 공주의 모친인 순원 왕후, 정조비 효의왕후와 후궁 화빈 윤씨, 익종비 신정왕후, 현종계비 명현왕후, 순종계비 윤황후 같은 왕실 가족들이 보낸 유물도 있다. 민간에서 왕실 유물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유물의 종류도 다양하여 복식, 머리장식, 화장도구, 장신구, 직물, 주방용구 같은 생활용품이 다수이고, 왕실 가족이 보낸 서찰이나 문방구도 있다. 이 유물은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왕실과 사대부 집안의 생활 자료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윤 여사는 집안에 전해지던 유물에 대해 한글 궁체로 설명문을 남겼다. 윤 여사의 궁체는 서예 전문가의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독특하며, 설명문은 유물의 내력과 용도를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 중 몇 가지를 이 글을 통해 소개한다.

유물 중에는 녹피(鹿皮), 즉 사슴가죽의 조각이 있다. 윤 여사의 설명문을 현대어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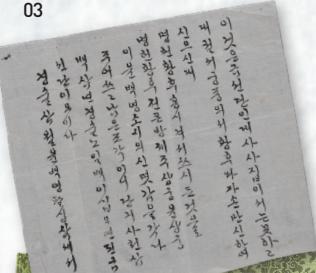
강원도 산에는 사슴이 많고, 인가(人家)에서도 사슴을 기를 씨를 받아 이익을 본다. 일 년에 임금에 사슴가죽을 천여 장씩 진상(進上)하고, 호조판서에게도 몇 장씩 보내고, 매매하는 것도 있다. 사슴가죽으로 방석도 하고, 문끈도 하고, 열쇠 끈도 하고, 바느질하는데 골무도 하고, 재상가(宰相家)에서는 침모방(針母房)의 골무를 하라고 일 년에 몇

조각씩 주었다. 지금은 사슴을 다 잡아 절종(絕種)되어 사슴가죽이라고는 없다. 이 녹피는 해관 윤공(윤용구)이 호조판서 때 온 것이니 단기 4300년이 75년이 되는 사슴가죽이다. 단기 4300년(1967) 정미 맹동(孟冬, 10월) 상완(上浣, 10일 전), 사후당(師候堂) 윤백영 80세 서(書).

조선시대에 녹피는 국가에 바치는 공물에 포함되어 각 궁방이나 지방 관청으로 하사되었고, 중국을 방문하는 사신이 가져가는 세폐(歲幣)에도 들어 있었다. 윤 여사의 기록은 이런 사실을 전하는 가운데 매년 강원도에서 바치는 녹피 중 일부가 호조판서에게 선물로 제공되었고, 녹피의 용도로 방석, 문끈, 열쇠 끈, 골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정황을 전해 준다. 기록에 의하면 현재 남아있는 녹피는 1893년 강원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관련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윤 여사의 기록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옷감에 대한 설명이 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이것은 금선단(金線綢)이다. 사사(私事) 집에 서는 못하고 궁중에서 황후와 자손만 신을 만 들어 신으신 것이다. 명현황후 홍씨께서 쓰시던 것으로 명현황후 전 쿤방 제조상궁(提調尙宮) 윤 상궁이 윤백영이 어릴 때 신 몇 감을 갖다 주어 쓰고 남은 조각이다. 단기 4303년



03 绿色 金线单



04 赤色 金线单

(1970) 경술에 125년이 된 금선단이다. 경술 3월 윤백영 83세 서.

이것은 자적(紫的) 금선단(金線緞)이다. 대궐에서 궁중에서 황후와 자손들만 신을 만들어 신었다. 금선(金線)에 각색 빛이 다 있으나 사사집에서는 못하는 금법(禁法)이었다. 생존하실 때도 하여 신으시고, 승하하시면 수의(壽衣)로 대전(大殿) 습신을 금선으로 하는데, 덕수궁 큰 방 제조상궁께서 50년 전에 이 신감을 윤백영에게 갖다 주었다. 이것은 창고에 있은 지 백여년이 된 것이니 다 삭았으나 귀한 물건이라고 받아 두었다. 이번에 순정황후 윤씨께서 승하하신 후 습신 감이 없어 이것을 바쳐 습신을 하여 드리고 남은 나머지이다. 170년 내지 180년 된 금선단이다. 단기 4303년(1970) 경술 윤백영 83세 서.

이상의 두 유물은 자투리로 남은 조그만 천 조각이다. 비단에 금실 또는 은실로 무늬를 만들어 짠 옷감을 '금선단' 혹은 '직금단'이라 하며, 앞에 설명한 것은 녹색이고 뒤의 것은 자적색이다. 두 가지 모두 왕실 물품으로 윤 여사의 기록을 통해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녹색 금선단은 원래 현종의 계비인 명현황후가 쓰다가 남은 것이다. 윤 여사는 이 천을 윤 상궁에게 얻어 신발을 만들어 신었고 자투리가 남았다. 명현황후는 대한제국이 건립된 후 황후로 책봉되어 1903년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윤 여사가 직접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을 보면 비단에 은실로 연꽃과 만초(蔓草, 덩굴 풀) 무늬를 만들어 짠 옷감이다.

자적색 금선단은 녹색 금선단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윤 여사는 고종황제의 상궁에게서 이 비단을 선물로 받았으며, 비단의 제작 시기는 18세기 말로 추정했다. 그런데 왕실 가족이 사망하면 망자를 위한 신발을 제작하며, 그 색깔은 자적색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1966년 순종 계비인 순정황후가 사망하자 신발을 만들 자적색 금선단이 없었다. 이에 윤 여사는 오랫동안 보관했던 금선단을 바쳐 신발을 만들게 하고 나머지 조각은 유물로 보관했다. 고종황제에게 받았던 귀한 비단을 그 며느리인 순정 황후의 장례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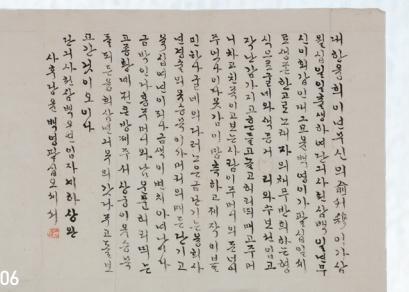
여기서 윤 여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는 그저 조그만 비단 조각일 뿐이다. 고급품이라 왕실에서 사용한 것임은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천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그런데 윤 여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 비단이 명현황후와 고종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고, 왕실 가족의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순정황후의 장례를 치를 때 신발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으로 귀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윤 여사의 유물 중에는 전통 풍속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윤 여사의 아들인 유승목(俞升穆)이 회갑이 되었을 때 모친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춰 복식이 그것이다. 다음은 윤 여사의 설명문이다.

대한 응희 2년(1908) 무신에 유승목이 3월 10일에 출생하여 단기 4301년(1968) 무신이 회갑이다. 그의 어머니 윤백영이 81세로 생존했기 때문에 노래자(老萊子)의 채무반희(彩舞斑戲)하는 형식으로 굴레와 색동거리와 수(繡) 베선을 입고, 장난감을 가지고 흔들고 놀며, 허리띠 매고, 주머니 차고, 친족과 보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다. 옷감이 망측하고 제작이 불민(不敏)하나 굴레에 달아놓은 금 맹기는 응희 4년 경술(1910)에 유승목이 머리에 매었던 맹기이다. 60여 년이 되었으나 금색은 변하지 않았다. 금박을 한 다흥주머니와 남운문(藍雲紋) 허리띠는 고종황제 전(殿) 근방 제조 서(徐) 상궁이 유승목이 돌이 되던 응희 3년 기유년(1909)에 가져다주고 돌보고 간 것이다. 단기 4305년(1972) 임자 계하 상완 사후당 윤백영 85세 서.



05~06 노래자(老萊子) 유물과 기록.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노래자(老萊子) 풍습이란,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란 사람이 70세가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같은 장난을 하여 부모가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한데서 유래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자식이 환갑이 되었을 때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어린 아이처럼 꾸미고 재롱을 부리는 풍속이 있었다.

윤 여사는 1968년에 장남 유승목이 회갑이 되자 아들에게 입히려고 색등거리(색동옷), 머리에 쓰는 굴레, 붉은 색 천으로 만든 꽃을 붙인 베선, 구름무늬가 있는 남색 허리띠, 주머니 등을 만들었다. 이 중에서 주머니를 제외한 유물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또한 남색 허리띠는 1909년 유승목의 돌날 고종황제의 상궁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고, 검은색 댕기는 1910년 유승목이 매었던 댕기를 다시 이용한 것이라 했다. 댕기의 끝을 보면 북경에서 제작한 수입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이한철(李漢喆)의 「반의한준(斑衣獻樽)」 그림을 보면 회갑을 맞은 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부친에게 술잔을 올리는 장면이 있다. 여기에 윤 여사의 유물과 기록을 합치면 노래자 풍습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온 공주 집안의 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주가 사용한 유물에는 돌상에 놓였던 오색견사 실타래와 공주가 돌 때 깔고 앉았던 실 방석이 있다. 오색견사는 윗부분에 땅리를 틀고 나머지를 늘어뜨린 것으로 공주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고, 공주가 앉았던 실 방석에도 공주가 실처럼 길게 오래 살기를 바랐던 순조 부부의 염원이 담겨있다. 안타깝게도 공주는 25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윷판과 윷말주머니도 한 세트가 있다. 윤 여사는 이것이 1772년에 정조와 화빈(和賓) 윤씨가 사용하던 것이라 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윷판을 원형대로 복원할 수가 있다.

왕실 가족이 보낸 편지의 말미에는 발신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공주의 모친인 순원왕후는 친필로 쓴 한글편지를 사위에게 보냈고, 여기에는 '순원숙황후 어필'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한제국기에 윤용구가 쓴 것으로, 왕비와 황후의 글씨도 '어필(御筆)'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종비인 명현황후나 고종비인 명성황후 민씨의 편지도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편지는 황후의 친필이 아니라 궁인(宮人)이 대신 쓴 것이다. 명성황후는 주로 내종동서가 되는 정경부인 연안 김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연안 김씨는 윤백영 여사의 모친이다. 한글편지 봉투의 아래 위에 한글로 '봉'이라 쓴 것도 흥미롭다.

조선의 왕실문화를 연구한 김용숙 선생은 윤백영 여사에 대해 '기억력이 장하고 박식하여 근 팔십까지도 창경궁 장서각(藏書閣)에 고서를 열람하려 다닌 단골손님'이라 소개했다. 우리가 윤 여사의 기록을 사실로 간주한다면 덕온 공주의 집안에 전해지는 유물에 대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다. 윤 여사의 유물 기록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기록이지만 그 기록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 필자소개

1962년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사를 거쳐 현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정조의 제왕학」,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왕세자의 입학식」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왕실문화를 집중으로 연구하고 있다.